

2002년 1/4분기 세계농약시장 어떠했나?

상위회사 대부분 매출 줄어 전년 동기대비 약 7% 감소

상위 10개회사중 인수·합병 힘입은 3개사만 매출 증가
농약산업계의 어려운 시장분위기 암시, 국별 통화요인 커

- 홍보부 -

1/4분기 세계농약시장 개요

올해 1/4분기는 분기별 매출을 제출하지 않은 스미토모 케미컬을 제외하고는 달러기준으로 상위 10개회사중 단지 3개회사만이 매출증가를 이루는 저조함을 보였다. 매출증가를 보인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와 바이엘, 막테삼-야간은 모두 전년에 이루어진 합병에 의하여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듯 대부분의 선도기업들이 거둔 저조한 결과는 2002년 초기에 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운 시장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2002년 1/4분기의 전체적인 농약시장 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하여 약 7%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달러환산으로 인한 영향은 산업의 실적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 유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02년 1/4분기에 달러에 대한 가치가 5.3% 떨어졌으며 일본 엔은 10.7% 떨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통화 환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1/4분기 전체 시장감소를 설명할 수는 없다. 떨어지는 가격과 제네릭 농약과의 경합, 2001년 4/4분기의 매출 변동 등과 같은 요인도 원인이 되었다.

북미지역의 미국 매출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망에는 재고가 2001년 4/4분기 조기 판매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높았다. 가격 침식은 2000년 9월 특허보호가 만료된 이후 계속 격렬해진 시장에 특히 글라이포세이트에 있어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다. 새로운 농업법의 불확실성도 1/4분기에 농업인의 투입재(投入材) 구입결정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2/4분기의 미국 매출은 1/4분

기에 재배를 늦춘 경우와 해충발생이 높아지는 온화한 날씨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좋은 기후조건을 보인 캐나다는 매출이 높았다.

남미지역의 아르헨티나 매출은 연초 통화 평가절하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다국적기업들은 실제로 신용판매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지역회사들은 원재를 더 비싸게 수입한다. 브라질에 있어서 매출은 높은 수요로 인하여 약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달러환산으로 인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에서는 현지통화로 매출이 완만하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strobilurins의 재배면적 증가로 곡류 살균제가 회복되면서 증가한 것이다. 또한 온화한 날씨는 병해충 발생을 조장하였다. 유채에서는 지난해 급격한 하락의 고통을 겪은 이후에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가축사료의 높은 수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과일과 채소 부분에서는 포도와 감자의 매출이 향상되었다.

극동지역의 낮은 매출의 주요 원인은 달러환산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본 및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태국과 같은 중요한 통화들이 미국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

회사별 2002. 1/4분기 분석

신젠티(Syngen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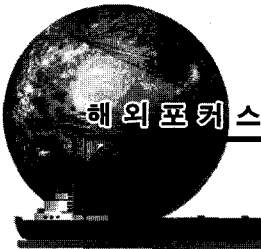
매출 3%감소 - 영국, 독일서 선전

비교적 좋은 실적을 보였다. 비록 200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4억7천2백만 달러로 3.0% 감소하였지만 이는 대부분 유로와 극동

지역 통화의 약세에 기인한 것이어서 실제적으로는 매출 변동이 없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지역의 매출이 6억2천8백만달러(-3.1%)로 가장 컸다. 통화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독일에서 신제품 출시와 영국 곡류 살균제 매출의 회복으로 인하여 매출은 2%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매출이 떨어졌다. NAFTA(북미자유무역)지역에서 매출 또한 5억5천1백만달러로 0.7% 감소하였다. 선택성 제초제의 재고부족으로 인한 미국에서 낮은 매출은 대부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강세로 상쇄되었다. 아·태지역의 사업은 2억4천4백만달러로 9.8% 감소하였지만 통화를 변경시키지 않고서는 4% 감소하였다. 신젠티는 이미 2001년에 남미지역에서의 매출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적극 진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이 9천4백만달러로 1.1% 높아졌다.

제품별로 보면 제초제는 7억3천2백만달러로 6.4% 감소하였다. 선택성제초제는 특히 미국 옥수수 시장에서 재고부족으로 인하여 5억6천5백만달러로 5.5% 감소하였다. Callisto(mesotrione)가 지난해에 출시되어 계속 성장하였다.

비선택성 제초제는 주로 극동시장에서 매출을 감소시킨 통화영향으로 인해 1억5천1백만달러로 9.6% 떨어졌다. 터치다운(클라이포세이트) 매출은 높아졌다. 통화를 변경시키지 않은 살균제 매출은 유럽 시장에서 Acanto(picoxystrobin)의 출시로 이익을 얻어 1%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달러로 환산하면 3억9천8백만달러로 3.4% 감소하였다. 또한 살충제 매출도 통화요인으로 인하여 8.5% 감소하였다. 통화를 변경시키지 않고서도 매출은 2% 감소하였다. 기타약제의 매출이



36.4% 증가하였고 전문약제 매출은 종자처리제인 Cruiser(thiamethoxam)의 높은 증가로 16.3%가 늘었다.

아벤티스(Aventis)

매출 4% 감소 - 합병·협상 장기와 영향

2001년에 좋은 실적을 보였던 아벤티스는 2002년에는 시작이 늦었다. 자국통화로 매출은 10억5천4백만 유로로 4% 감소하였다. 달러로는 9억2천5백만 달러로 9.0% 감소하여 저조한 실적을 낸 선도기업들 중에 속해있다. 이런 감소의 일부는 바이엘과의 사업 합병에 대한 견제와 지속된 협상으로 인한 장애로 이루어졌다. 그밖에 남미(아르헨티나)에서의 감소와 경쟁업체들의 유통경로 조기구축으로 감소되었다. 또한 4월 실적이 크게 개선되리라는 기대에 의한 뒤늦은 매출이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몬산토(Monsanto)

매출 23.4% 감소 - 2/4분기 매출에 기대

매출이 5억6천2백만달러로 23.4%로 감소하여 2002년 1/4분기 선도기업들 중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는 2001년 3/4분기 이후 겪는 분기매출의 하향기조가 가속된 것이다. 1/4분기의 감소는 주로 전체적으로 라운드엥(글라이포세이트)의 부진에 의해 이루어졌다. 라운드엥의 전세계 매출(잔디와 정원용 포함)은 3억6천1백만달러로 21.9% 떨어졌다. 라운드엥 전체 양은 주로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감소하여 10% 떨어졌다. 평균판매가격도 미국에서 큰폭으로 감소하여 13% 떨어졌다.

또한 잔디와 정원용 글라이포세이트 처럼 선택성 제초제의 매출도 감소하였다. 특히 미국 아세트아닐라이드 제초제(아세트클로르, 알라클로르 등) 사업도 지난해 말 매출 변동으로 떨어졌다. Scott Company에서 판매하는 잔디와 정원용 글라이포세이트는 소매상들이 재고를 줄여 낮아졌으며 연말에야 매출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 도매업자의 재고는 전년보다 높았다. 1년전과 비교하여 본다면 평균판매가격의 하락은 낮은 가격 제품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 캐나다에서의 사업은 기후조건이 좋아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통화가 평가절하(平價切下)되어 있는 남미의 경제문제가 몬산토의 사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매출은 높아졌으나 아르헨티나는 떨어졌다. 몬산토는 1/4분기 말 시점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미지급채권으로 5억6천6백만달러를 가지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유로화의 약세가 매출 가치를 감소시켰다. 아시아에서는 매출은 제네리카의 경합과 부정적인 통화변경으로 인하여 떨어졌다. 몬산토의 중요한 시기는 2/4분기(2001년 매출의 42% 차지)이다. 이시기에 좋은 실적은 1/4분기의 감소를 다소 상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바스프(BASF)

매출 15.7% 감소 - 재고 영향받아

두 번째로 나쁜 실적을 나타냈다. 현지통화로 10억3천8백만유로로 15.7% 떨어졌다. 달러로는 9억1천1백만달러로 20.2% 감소한 것이다. 주로 이런 감소는 재고를 최적화 하는데

서 나타났으며 이런 노력은 2/4분기의 매출 변화를 빠르게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엘(Bayer)

매출 6.4% 증가 - 유럽 북미 오조 영향

2002년 1/4분기 매출은 8억6천6백만달러로 6.4% 증가하였으나 달러로는 이런 증가는 7억6천만달러로 0.8% 줄었다. 그러나 이런 평이한 성장률은 바이엘이 선도기업들 중 세 번째로 좋은 실적을 나타내게 했다. 대부분 유럽과 북미에서 사업이 증가하여 일어났다. 유럽 제초제 매출은 2002년 2월 신젠타로부터 Mikado(sulcotrione)를 인수하여 올라갔다. 또한 신젠타에서 인수한 Flint(trifloxystrobin)의 지속적인 증가는 유럽과 북미에서의 살균제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남미의 매출은 약세를 보였다.

다우 아그로사이언시스(Dow AgroSciences)

매출 12.9% 증가 - 롬앤드하스 인수 힘입어

매출이 5억6천만달러로 12.9% 증가하여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 이는 2001년 6월 1일에 인수한 롬앤드하스 농약사업의 공헌으로 이루어 졌다.

롬앤드하스의 2001년 1/4분기 농약매출은 1억5천1백만달러였다.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의 2001년 1/4분기 매출로만 본다면 2002년 1/4분기 매출은 13.4% 감소할 것이다. 이런 매출 감소는 아르헨티나의 경제문제와 지난 4/4분기에 북미의 매출변동을 포함한 몇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롬앤드하스 농약사업의

추가는 유럽에서 제초제와 살균제 물량을 20% 이상 증가시켰다. 지금 롬앤드하스 농약 사업의 통합은 80% 이상 이루어 졌으며 2003년까지 8천만달러의 상승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듀폰(DuPont)

매출 완만 증가 - 안정적 판매 이뤄

매출은 약 4억8천8백만달러로 큰 변동이 없다. 비록 양은 완만하게 증가하였지만 유로와 엔의 약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인하여 상쇄되었다. 전체 판매가격은 안정적이었다.

미국에서 2001년에 시작한 Steadfast(nicosulfuron+rimsulfuron)대량운송체제는 잘 운영되고 있다.

에프엠씨(FMC)

매출 3.0% 감소 - 후반기 매출에 기대

매출은 1억3천1백만달러로 3.0% 떨어졌다. 북미에서 대두 제초제인 Authority(sulfentrazone)의 매출은 떨어졌다. 재고와 판매를 일치시키기 위해 2002년 3월부터 9개월간 미국 발티모어에 있는 sulfentrazone 공장을 일시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살충제 사업은 동유럽에서의 카바메이트 매출은 낮아 졌으나 Fury(zeta-cypermethrin)의 초기 매출이 강화되어 부분적으로는 상쇄되었다. 북미에서 특수사업의 강한 성장을 누리고 있다. 2/4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높은 매출에 의하여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약정보**